



하얀 눈으로 뒤덮인 우리 마을



사진과 글은 **마을을 담는 사람들** 홍수진님의 재능기부 작품입니다.

C O N T E N T S

2016... Vol.60

함께해서



- 02 스토리가 있는 마을사진
- 04 제6회 지역공감어울림축제
- 06 우리마을 사례관리 이야기
- 08 홀몸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천하장사 만만세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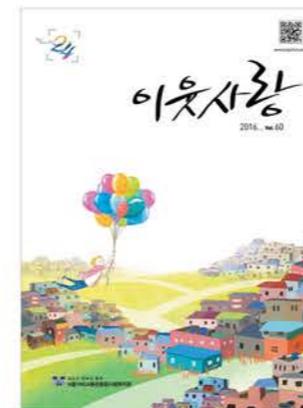


- 10 봉천복지관이 만난 사람들
- 경로식당 봉사자 '최명자'
- NH투자증권 사내봉사단 'NH행복드림'
- 12 후원/나눔소식
해피빈 결과보고
- 13 복지관 이모저모
- 14 봉천NEWS

봉천



- 16 사랑나눔 하나 _ 행복후원
- 17 사랑나눔 둘 _ 나눔실천
- 18 소통하는 마을 _ 주민조직 양성과정



이웃사랑 통권 60호

제6회 지역공감 어울림축제

행사트다 하트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날, 주민에게 사랑받는 청림동 어울림길에서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제 6회 지역공감 어울림축제'가 열렸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어느덧 6회를 맞이하고 있는 지역공감어울림축제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해주셔서 축제의 현장인 어울림길을 가득 메워주셨습니다. 그 축제의 현장 속 어울림길의 행복스토리를 살펴볼까요?

글 _ 지역복지팀 정미정 팀장



Part1 주민화합이벤트

청림동 어울림길에서는 주민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하트모양의 부채를 흔들며 '하트다 하트'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번 축제의 모든 기금은 지역의 청소년 교복지원비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주민화합 이벤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Part2 체험마당

청림동 어울림길을 따라 줄지어 늘어선 체험마당 부스에는 19개 지역사회 단체와 주민동아리에서 준비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주민들로 북적입니다. 마담사부스에서는 포토존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사진을 찍어주었고, 여러나라 열쇠고리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팔찌 만들기, 태양력발전기로 솜사탕으로 만들어 먹는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가득했습니다.



Part3 공연마당

봉원중학교 오케스트라 '올림'의 연주를 시작으로 7개의 공연팀과 장기자랑팀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짝 채운 객석의 관중들은 무대주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오케스트라공연부터 어르신 민요 공연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으로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Part4 마을사진전시회 & 놀이마당

사진동아리 '마을을 담는 사람들'에서 우리 마을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담아 마을사진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정겨운 모습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마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이마당에서는 림보, 다트, 농구 등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거운 놀이시간을 보냈습니다.



Part5 먹거리마당 & 아나바다 장터

야외에서 먹는 꿀맛 같은 식사를 위해 줄을 선 주민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청림동바르게살기협의회와 봉천삼동봉사회, 청림동새마을부녀회의 부침개, 청림동통우회의 떡볶이, 행운동부녀회의 순대, 열린다문화키친의 오코노미야끼, 아름다운이웃디딤돌 영구스피자의 피자와 콜라 등 풍성한 먹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나바다장터에서는 쓸 만하지만 잘 쓰지 않는 물품들을 판매하고 나눴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후원금은 청소년 교복지원비로 사용되어집니다.



지역공감어울림축제에 참여하고 즐겨주신 모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주최** 우리마을희망네트워크(위원장 : 이승선/관악새마을금고 이사장) 관악새마을금고, 청림동주민센터, 행운동주민센터, 청림동주민자치위원회, 행운동주민자치위원회, 청림동통우회, 행운동통우회, 청림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림동자연보호협의회, 청림동방위협의회, 행운동방위협의회, 청림동자율방범대, 청림동바르게살기협의회, 청림동새마을부녀회, 행운동새마을부녀회, 봉천삼동봉사회, 관악동작적십자봉사단, 도담어린이집, 관악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악푸르지오아파트2단지주민대표회,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총 21개 기관 및 단체)
- 주관**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 후원** 서울시 / 관악구청
- 협찬** 현대HCN, 국민은행 봉천동지점, CJ제일제당, NH투자증권, LG전자, 유한킴벌리, 관악식자재마트,농심, 국민연금관악지사, 영구스피자, 디딤아트, 메르제니, 승민사, 삼성전자

함께 해주신 분들

- 참여단체**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관악새마을금고, 관악시니어클럽, 관악주민연대, 관악중학교, 관악푸르지오아파트입주대표회의, 국민연금관악지사, 글놀이마당, 글빛정보도서관, 다울, 도담어린이집, 마을을 담는 사람들, 마음더하기, 명지어린이집, 봉원중학교, 봉천삼동봉사회, 서울YWCA, 아기자기, 청림동바르게살기협의회, 청림동새마을부녀회, 청림동통우회, 함마중, 햇살바구니, 행운동새마을부녀회, 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공연팀** 관악연예인예술단, 초대가수 '남순', 청림동주민센터 '민요교실', 행운동주민센터 '맷돌 체조팀', 봉원중학교 오케스트라 '올림', 노래하는 꿈틀이, 칸타빌레 색소폰동호회

폭염 뒤 반가운 소나기, 이웃들 마음 곳곳에 내려...

글 _ 통합사례관리팀 **윤송희** 팀장

낮 기온이 36도 안팎을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었던 2016년 8월, 뉴스에서는 연일 '폭염절정', '폭염특보', '최고기온 경신'이라는 기사를 다루었고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와 온몸을 찌르는 듯 한 땀 때문에 우리는 잔인할 만큼 더웠던 여름을 보내야만 했다. 정말 끝을 모르는 무더위의 연속이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 버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조금만 걸어도 등에는 땀이 줄줄 흘렀다. 우리는 들끓는 더위와 싸웠고 전기요금 누진세와 또 한 번 싸웠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를 트는 것조차 겁이 나는 일 일 수 있다. 몇 십 만원의 전기세가 아니라 단돈 만원의 전기세 때문에 맨 몸으로 더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정부의 대책이 더욱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얼 할 수 있을까?

오늘도 어김없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지만 아스팔트길에는 본인의 몸보다 3배는 더 나가 보이는 폐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외소한 몸의 어르신들을 종종 본다. 폐지를 팔아봐야 하루에 고작 몇 천원.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소일거리로 한다는 어르신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가혹한 날씨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집에서 좀 쉬시지, 하루라도 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생활이 어려우신건가? 나라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닐까?'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보면 사회복지사인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통합사례관리팀에서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혹은 방법을 알아도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어 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는 지역아웃리치를 매달 한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로 찾아가는 곳은 고시원, 여인숙, 고물상. 2평 남짓 창문 하나 없이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고시원, 쪽방에 살고 있는 이웃들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그나마 선풍기가 있는 집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20~30만원의 방세와 공과금을 내다보면 선풍기를 구입할 여력이 되지 않아 맨몸으로 더위를 이기며 여름이 지나가기만을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된다. 가는 곳마다 사장님, 주민분들은 복지관에서 좋은 일을 한다며 반가워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소개해주기도 한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은 대부분 몸이 아파 일을 할 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없는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복지관에서는 그런 분들을 소개받고 만나고 복지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본다. 실제 올해 7월 지역아웃리치를 통해 A고시원 사장님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 아저씨와의 만남을 도와주셨다. 이씨 아저씨는 몇 달째 고시원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복지관에서는 아저씨와 사례관리를 통해 아저씨의 바람처럼 건강을 회복해 다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고 있다.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 생계문제로, 질병으로, 가족 간의 불화로, 가지각색의 이유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무더위를 식혀줄 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비가 되어 줄 한 사람을 기다리는 소외된 이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일은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지만 우리 동네에 어떠한 어려움을 가진 이웃이 살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건 주민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폭염보다 견디기 힘든 사회의 무관심 때문에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일, 주민들의 작은 관심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이 여름이 지나면 마음까지 시린 겨울이 찾아오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의 마음만은 넉넉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웃이 있지는 않나요?"

- ▶ 도움이 손길이 닿지 못한 사각지대 이웃
- ▶ 경제, 의료, 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이웃
- ▶ 개인과 가족의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통합사례관리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업대상 남현동, 성현동(동아A), 청림동, 행운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
사업내용 사례관리, 위기가구 긴급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서비스	내 용
취약계층 틈새지원사업 (희망드림 SSS)	•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교육비 지원 • 편부가정 식품상자 지원 • 가족 기념일 지원(가족여행, 가족외식 등)
위기긴급지원사업	• 주거·생계·의료·냉난방비·재해재난구호비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배, 장판교체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홀몸어르신 건강관리프로그램

'천하장사, 만만세'



글 _ 복지서비스팀 임한솔 팀장

사업기간

2016년 5월~10월

대상

홀몸어르신 20명

내용

건강교육, 건강실습(나들이 활동),

운동프로그램(웰빙댄스, 양생체조),

자조모임

지원

서울특별시

원, 투, 차차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가며 서로의 눈을 맞추어 가며 또, 발을 맞추어 가며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어르신들은 인근에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하는 시설이 많지 않다보니 여가프로그램을 즐기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보라매공원 근처로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이 없다면 거의 집과 동네 밖 산책정도만 하던 어르신들이 인근 복지관에서 건강프로그램을 한다고 홍보를 하니 기뻐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장사, 만만세' 라는 사업은 홀몸어르신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심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새롭게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하고 활력을 잃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처음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인근 한의원(복지관에서 월 1회 어르신들에게 침치료 봉사를 하고 있는 방하한의원의 윤강대 한의사)연계로 노년기에 관리해야 하는 치매, 고혈압, 당뇨 예방법 교육과 실습, 건강관리 교육을 받고 한 자리에 모여서 생활나눔도 하고, 운동(웰빙댄스, 양생체조)도 합니다.

운동프로그램은 매주 월, 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동이 끝나면 어르신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마주보며 "사랑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모든 병은 없다." 라고 외치는데, 표정이 밝고 활기칩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손도 안 잡으려고 했던 어르신들이 어느새 본인의 평소 생활도 나눌 정도로 친해져서 맞추어 가는 모습을 보면 큰 변화를 느낍니다.

어르신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이셨고 9월 30일(금) 수료식 및 평가회를 진행하였는데, 총 22명 중 무려 17명의 어르신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후속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서 12월까지 건강관리법 공유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과 운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고 친구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보며...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봉천복지관이 응원합니다!!



참
여
자
들
의

도란도란 소감나눔



집에만 있으면 뒤흔. 처음에는 발도 안 댄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제법 따라하게 된다니...친구도 따라오고 싶다고 하는데, 중간에 들어오지는 못하니 내년엔 또 하면 같이 오려고요.



운동 하나 배우려고 하면 버스타고 짜기까지 가야했는데,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없애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소수 정예로 운영되다보니까 친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잘 봐주니까 이제는 제법 잘 따라 해요.



여기 와서 친구도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고 좋아. 집에만 있으면 뒤흔. 여기 나오니까 복지관 온다고 톨도 움직이고 와서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서울시 지원이 끝나고서도 계속 운영이 되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고 생활의 활력이 생기고 좋아서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이상했는데도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계속 참여하고 있다니까..

봉천의 대표로 상 받았어요!

최명자 자원봉사자



글 _ 복지서비스팀 조시원 사회복지사

● 행복한 식당에서 10년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성당에서 봉사모임에 속해있어요. 봉사활동을 평소에도 하고 싶었는데, 마침 복지관에서 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봉천복지관에서 활동하면 좋겠다 싶었죠. 시작한지 만 10년이 되었는데, 통장이나 부녀회장 등을 하면서 지내다보니 봉사활동에 나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 지난 10년간 행복한 식당에서 봉사하시면서 보람되거나 행복했던 기억 또는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60대에 시작해서 어느덧 70대 중반이 되었네요. 예전과는 다르게 관절염도 생기고, 몸이 많이 아프죠. 하지만 특별히 여행갈 때 빼고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파서 하루라도 빠지는 날에는 '내가 집에서 뭐하나,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내 뭇까지 해야 할 텐데 빨리 가서 도와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봉사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일주일간은 맘이 참 뿌듯하고, 행복하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미 10년 이상을 만났으니 모두 한 가족처럼 느껴지고는 하지요.

● 최근 관악구청장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

가서 보니 엄청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더군요. 그 사이에서 제가 뽑혀서 구청장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랐던지. '내가 그동안 힘든 걸 이겨낸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봉천복지관을 대표해서 받은 상이구나' 하는 마음에 더 힘이 났어요.

● 최명자 어머니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죠. 자원봉사를 시작하는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시작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이 참 많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남에게 줄 때 더 기쁘고, 뿌듯하다는 걸 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한 번 하는 것으로는 느끼기 힘들어요. 다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몸이 건강하고, 허락하는 날까지 봉천복지관에서 봉사할 거예요. 처음에는 레지오 (성당 봉사모임) 단장이니까 앞서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단장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끝까지 참여하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하면서 점점 참여를 많이 안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수영장에서나 성당에서 함께 해보자고 권유를 해봐도 막상 하려고 하면 못할 것 같다고 다들 그래요. 저는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NH투자증권 사내봉사단 'NH행복드림' 를 소개합니다!

글 _ 복지서비스팀 박정운 사회복지사



☪ 봉사팀 소개

당사에서는 농협의 나눔 경영을 모토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그 중 하나가 사내봉사단 활동인데요, 상품지원본부 소속 3개의 부서가 'NH행복드림'이라는 봉사팀으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봉사 활동 내용

봉천복지관에는 3년 전부터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3~4명씩 자원하여 매월 1~2회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거 노인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도시락 배달을 진행하거나 봉천복지관의 무료급식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봉사 소감

마음속으로는 막연하게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시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못하고 있었던 직원들이 봉천복지관 봉사활동을 통하여, 다른 분야의 봉사활동 시작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갖게 해주고 있으며, 행동하는 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 나눔 / 이 / 있 / 는 / 마 / 을

교육지원모금함

새교복을 입고 꿈을 향해~ JUMP



글 _ 지역복지팀 김예슬 사회복지사

교복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교복을 떠올리면 누구에게는 좋은 추억이지만 누구에게는 아픈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청소년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교복지원을 위해 해피빈 교복지원모금함을 열고 저조한 모금액으로 마감하려던 찰나에
 시드니에 있는 후원자님께서 모금함의 부족한 금액을 모두 채워주셔서 총 1,120,8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먼 땅에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과 쿵을 모아주신 123명의 후원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살고있는 두딸의 엄마입니다.
 네이버 해피빈에서 교복후원비가 오늘이 마감인데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걸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참 예민한 나이입니다.
 그 아이들이 후원의 명목으로 마음 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2학년때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여유롭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지요. 아버지는 택시회사에 취직을 하였고 가족을 위해 잘못자며
 고생하셨지요.

그 회사에서는 우등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었는데 한번은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전 택시회사에 가서 장학금받으며 사진 찍히는게 너무 힘들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린마음에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지만요..
 올해 대학에 들어간 큰딸과 중2인 막내딸을 둔 엄마로서 함께 나누고 싶네요.
 학생에게 교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드니에서 민00드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소년을 위한 교복비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청소년 교복비 후원안내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후원감사편지 & 복지관소식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봉천복지관에 후원하시면 후원금의 100%가 교복비에 전달됩니다.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신청

지역복지팀 김예슬 사회복지사 870-4453

후원계좌

국민은행 037401-04-018411

예금주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주요사업안내

2016 봉천을 빛낸 star의 밤!

봉봉시네마 'Bong 奉 cinema'

2016년 한 해 동안 봉천복지관과 함께해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_ 2016년 11월 24일 (목) 19:30

장소 _ 롯데시네마 서울대입구점 11층

내용 _ 시상식, 영화관람, 기념품 증정

문의/신청 _ 조시원 사회복지사 870-4457

2016 우리마을나눔이웃프로젝트 '덕분입니다'

지역사회 내 모금활동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우리마을 나눔이웃 프로젝트 '덕분입니다'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일자 _ 11월-12월 중

대상 _ 지역사회 내 저소득주민 300명

내용 _ 어르신 생필품 지원, 청소년 교복비 지원 등

후원문의 _ 지역복지팀 김예슬 사회복지사 870-4453

지원사업 선정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기관
공감소통마을사진전 '마을과 사진이 통한다'	2016년 평생학습 협력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서울시교육청
저소득독거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천하장사, 만만세'	서울시민제안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사업	서울특별시
스트레스취약 청년을 위한 삶의 질 향상프로그램 '희희낙락(喜喜樂樂)'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자 지원 특화사업	서울시복지재단
열린공간 열린주민모임 '트인(in)통(소통)공간'	종합사회복지관 공간개방사업	서울특별시
다문화이해활동가 '다올' 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2016 관악 마을교육 컨텐츠 지원사업	관악구

+ 직원동정

- 김은희관장님이 새직구가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 복지서비스팀 조시원 선생님, 여창숙영양사님이 새직구가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 봉천 NEWS



복지서비스팀



희망두배청년의 삶의 질 향상프로그램 '희희낙락'
 희망두배청년의 기쁘고 즐겁게 식도락!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서울시 자선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감정코칭교육, 요리, 여행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을 이해하고, 단체놀이를 통해 청년의 스트레스 요인인 직장생활과 관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 한 층 더 행복한 내일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위기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을 돕기 위해 관악, 구암, 봉원중학교와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의 내면 탐색과 감정 표현을 위한 자아탐색프로그램, 청소년의 응집력 강화를 위한 청소년 테마활동, 가족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가족 활동을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이 나, 또래 집단, 가족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나눔美인'
 8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에 의한!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나눔美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 어른인 척에 방문하거나, 지역축제를 기획하면서 함께 생각과 힘을 모아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어울림길에서 열리는 '지역공감어울림 축제'에서 '포토존'으로 활용됩니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나라의 새싹,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역복지팀



봉천지역아동복지기관네트워크 바자회
 4월 23일(토) 어울림길에서 봉천지역아동복지기관네트워크 바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하는 바자회로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를 판매하여 지역의 아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즐기고, 지역에 봉아네를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을 위한 봉천지역아동복지기관네트워크의 활동을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지역복지팀



2016 다문화가족박람회 Rainbow+
 6월 18일(토) 관악무지개네트워크(관악구 내 다문화 관련 11개 단체)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족박람회 Rainbow+가 지역주민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악구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장기자랑, 먹거리, 체험활동을 내용으로 지역주민이 다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요. 다문화가족박람회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아웃리치
 지역사회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탈핵을 주제로 한 아웃리치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탈핵 캠페인과 서명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탈핵 서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탈핵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월에는 9월에 열리는 지역공감어울림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지역축제 홍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복지관을 알리기 위해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통합사례관리팀



희망마차 식품나눔행사
 3월 11일(금) 오후 2시, 봉천복지관 강당에서 서울광역푸드뱅크 주최, 이마트의 후원으로 희망마차 식품나눔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45명의 무료급식 이용 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을 전하드리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통해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오래 기다리셨지만 원하시는 식료품을 선택하여 가져가실 수 있어 만족해하셨습니다.



2016 관악구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 사례관리팀 연합교육
 5월 12일, 19일(목) 관악구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 사례관리팀 연합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해결중심실천가협회의 차준 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해결중심접근 기본교육'을 진행하여 20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해결중심접근의 주요원리, 실천원칙, 사람에 대한 기본전제, 유용한 질문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론 교육 및 조별 실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해결중심접근 실천기법에 대해 배우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권역 민간협력 사례관리 워크숍
 7월 12일(화) 오후 3시에 봉천복지관을 거점으로 남현·성현·청림·행운동의 주민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를 잘 모르는 강사는 NO! 지겨운 교육도 NO! 우리 모임을 가장 잘 아는 봉천복지관 MC의 진행과 야심차게 기획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까지! 단연 최고의 프로그램은 "우리동, 히트다 히트"였습니다. 적어도 8년은 그 동네에서 일해 봐야 한다는 우리 동 숨은명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자원 맵 만들기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에 대해 더 이해하고, 동료 사회복지사들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

행복후원 | 2016년 3월~2016년 8월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참여업체

대박집, 대홍이공원, 돈나라, 백양세탁소, 소문난떡집, 신선설농탕서울대역점, 알뜰로피자 신림점, 영구스피자, 우성각, 우성세탁, 파리바게뜨서울대입구역점, 해일손칼국수, 1004헤어필

벌저금통 후원자

대홍이공원, 무궁화약국, 파리바게뜨행운점, 한마음문구

개인후원금

강승애 강창신 강 향 강현욱 고윤경 고혜승 구용희 권선미 기정아 김경석 김관중 김나나 김동수 김란애 김명희 김미경 김민지 김보선 김상연 김선덕 김선영 김선자 김양숙 김연희 김영상 김영찬 김예리 김용기 김유진 김은숙 김은실 김은영 김은정 김정완 김중효 김지현 김진성 김진숙 김창배 김창현 김치백 김하림 김현노 김현주 김혜령 남궁선 라민경 류입주 문중숙 민혜선 박기수 박기형 박영찬 박미선 박미용 박보근 박선영 박수현 박솔기 박용란 박인수 박정윤 박종화 박종희 박지혜 박현준 박희숙 배은정 백광일 백인성 복현순 복 현 서경순 서미숙 서민경 서현숙 서희원 소은선 손지석 송진아 신우람 오경혜 오민숙 오민정 오윤나 왕오경 원종혁 원해솔 유지원 윤용욱 윤재만 윤현욱 윤희원 이명희 이상경 이상욱 이선하 이정미 이정숙 이정애 이정희 이재준 이종혁 이지원 이정택 이태남 이형준 이혜선 임유연 정경래 장길자 장윤순 장정남 전금숙 전영진 전정혁 전효수 정갑기 정미정 정성훈 정유하 정현진 정혜원 최대한 최유리 최윤주 최 화 최효선 한동화 한아름 한옥자 한창훈 함은경 홍익기 홍옥화 황송현 황정금

봉사회 사랑나눔회 후원금

강나영 강신영 고유미 고춘복 곽은정 구가환 김문순 김미자 김상경 김순미 김예슬 김오택 김진석 김춘실 김혜진 문광명 문길전 문병의 민선자 박기천 박만일 박성모 박인규 방영옥 백성원 서강남 서윤기 송영학 송원태 신동구 여옥수 오장준 오준섭 왕진호 우성훈 유기홍 유영자 윤송희 이명준 이상준 이상현 이승선 이승욱 이승자 이용철 이인식 이정범 이주현 이준영 임대선 임락정 임한솔 임형신 장소현 정용일 장윤익 정성운 정오택 정우성 정형일 정호철 조명화 조혜원 조효형 최나선 최인승 표태룡 한태현 현동열

개인후원금 소계 20,086,400원

단체후원금

(주)현대HCN관악방송, 갈릴리교회, 구립레미안어린이집, 기독교어린이집, 나래어린이집, 나무누리의료생협, 다솜어린이집, 다원구조다인회, 디딤아트, 명지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봉원중학교, 봉천복지관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선봉어린이집,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연수어린이집, 예수마을교회, 유라통상, 은천운수, 썸쟁이어린이집, 키즈맘어린이집, 푸르메재단, 푸른솔어린이집,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해피민, 현대자동차그룹

단체후원금 소계 16,266,700원

후원품 입금내역

슈스타(아동신발 3박스) 신선설농탕서울대역점(설농탕 100그릇) GS25관악푸르지오점(진양길 28박스) 피자알볼로신림점(피자) 꿈꾸주는과일재단(과일60박스),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마스크팩 외 30박스) 김상연(상품권3매) 이형준(쌀 10kg 16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영어상품권 35매) 알라딘(아동의류 7박스) 소문난떡집(떡 100개), 승민스(의류 2박스) 박인수(문화상품권10매) 토론토사랑치과(오픈레 150개) 엘리자베스(의류 20박스) (주)현대HCN관악방송(홍보영상출) 씨제이제일제당(주)(뿌피첵 900개) (주)LG전자(제스개1대) 관악새마을금고(캐리어커버10개) 국민연금관악지사(물티슈300개) 유한킴벌리(좋은느낌81박스) NH투자증권(경품7종) 삼성전자(보조배터리2개) 농심(라면16박스)

후원품 환산액 102,994,060

2 후원금 결산보고 | 2016년 3월~2016년 8월

구분	수입		지출	
	후원자	금액(원)	내역	금액(원)
일반후원	CMS(개인), 현대자동차 외	19,230,159	통합사례관리팀사업비	11,710,510
			지역복지팀사업비	20,335,380
			복지서비스팀사업비	9,709,806
			저소득지역주민 일반후원	857,000
결연후원	유라통상 외	16,947,000	저소득지역주민 결연후원	15,410,000
사업후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외	25,995,000	희망온돌(위기긴급)사업비	1,451,885
합계		62,172,159	합계	59,474,581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401-04-018411 | 예금주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

자원봉사 | 2016년 3월~2016년 8월



도시락배달

이흥민 장재우 조경화 장서운 김옥란 박소영 최미정 김미란 전효범 윤여진 김선태 김예지 장진호 장세명 황준호 김승수 이상민 정우성 조은주 정윤아 조경화 노준수 김가빈 서수연 전옥태 박가람 김동현 최재웅 박지운 정영훈 이다솔 김건영 Rozells 우종빈 이정운 박소정 김명준 박 영 김여진 조명숙 오세훈 심혁보 양명준 이민영 오희원 정성혜 김보라 임리연 고지혜 황 윤 양준영 권순현 임영창 박세명 강지훈 경승호 윤해찬 경승호 이강용 백세명 이수민 염인성 박홍진 강경태 정연훈 조재화 염보성 이지현 양다운 양경식 송유아 양다솔 이윤영 김혜민 정세웅 안혜진 반성민 박지수 조희정 정민지 김애경 구여진 서단비 김동인 박재현 김세영 김하민 최 윤 여익연 양경화 최용아 윤동경 박정호 최창근 정영훈 심영보 김정현 송민석 이용진 김찬호 이진한 송윤재 유영훈 이상덕 정은형 박민서

롯데캐피탈

이의현 김주영 김지윤 변현아 정용태 이은지 이강국 김은민 문경민 이진우 전현지 정세희 윤경태 신하얀

국민연금

김윤정 김지영 김성호

NH투자증권

김대운 최은석 임우영 김재호 최윤석 여한솔 김대중 서상국 윤창원 유동완 최은호 이은정

관악시설관리공단

조유연 김원식 김지혜 이동의 김상현 조은숙 광정화 반준석 윤승민 반성민

현대자동차

권지선 권태중 김상연 김정호 배준우 양희재 윤영민 윤태근 장용운 장수창 차종길 엄창수

나무누리튼튼의원

오은옥 이정수 정문고 박병현 김상완 여은덕 윤태수 백송이 남희길

경로식당

김태숙 전무남 정복성 강경자 정복희 이영미 이동심 이용진 박금주 김성숙 한옥애 최명자 김명숙 유성열 김해옥 김재수 배성민 오도경 나계분 오승현

봉사회

강성수 기우권 김광석 김상경 김영석 문복주 박정범 서병관 서한석 송영학 유용현 윤태수 이준영 임대선 왕진호 장윤익 정수일 정명희 조효형 최춘길 표영주

카페방하

윤강대

마음더하기

강하림 김 택 유민희 이용진 이광수 차홍숙

예수마을교회

구나영 김운형 김해린 박세건 이현범

미니바자회

김도원 정영훈

덕분입니다

김동현 정민희 정영훈 홍윤미 태윤재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금융교육

김종효 박승록 송혜은 신우람 조문호

청소년프로그램

김시은 은정혜 이후현 오세욱 조수빈

가정방문학습지도

박지운

다울

김순화 김재신 김홍희 마르하보 멜라니 박채원 박희선 부이티프영 사유리 사이토아키 신경임 양현숙 어 커 이국화 이영화 이안숙 이하경 조명옥 전정미 진 불 최나희 한옥애

햇살바구니

김영주 김영희 민홍기 박경자 배별이 서화정 손정미 윤태식 이순희 조귀선 한옥자 황덕순

글놀이마당

강선숙 김미옥 박혜정 선우윤정 윤숙현 이정은 조미영 정형남 최선화 한소라 한용희 홍지혜

마을을 담는사람들

임형호 김세린 김순남 김영애 김학균 남성연 유은자 은율기 오석중 임경숙 이정심 이희선 홍수진

청소년지원

곽동민 남현식 박종민 소진실 양동규 정태석 조승자 최병건

다독

백문권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나눔美人'

강민우 강민지 강주희 구승하 기현민 김규현 김나연 김단비 김민서 김소위 김시은 김예진 박민영 박세준 박지훈 서 현 성현준 소지는 손예지 신지혜 신지호 양경식 양상현 유영석 유영훈 유지아 윤채원 윤혜신 유 진 원다희 이민규 이승찬 이예림 이지현 이한빈 이호원 전수빈 전아현 전현서 정민호 정소영 정연지 정예지 정혜라 조은영 조혜리 진재영 최민영 최성현 최유나 최유정 최원 최희정 최현영 홍순원 황예지

문영학교

'여우사이' 봉사단

구다서 김민정 김정은 김지혜 노경민 민희수 엄하은 윤서영 윤소정 이유림 이찬희 정내영 정소윤 정지현 정하은 조성희 조 혜 채연희 한시은 홍가현

2016년 주민조직 양성과정 이야기

글 _ 지역복지팀 조혜원 사회복지사

2월 February

2.24 /
마담사양성과정시작~



마담사

마을을 담는 사람들은 우리 마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배운 재능을 마을에 봉사하는 주민조직입니다. '마음을 담아 마을의 아름다움을 나눈다'는 비전을 갖고, 사진을 배우고 마을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마담사는 정기모임, 정기출사, 마을사진전시회, 사진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이웃과 교류하며 정다운 우리마을의 정취를 느끼고 싶으신분들 기다립니다~ 함께해요!

3월 March

3.7 /
다올양성과정 시작
3.11 /
다올 양성과정 수료식



다올

다문화이해활동가 '다올'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이주여성과 선주민 여성이 함께 활동하는 주민조직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나라별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다름'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이해교육 이외에도 지역 내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주민에게 다문화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해활동의 확대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는 비전에 맞게 활동내용과 지역을 확대하며 활발한 조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다문화 전문단체 다올!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4월 April

4.6 /
마담사양성과정 수료식
4.12 /
글놀이마당 양성과정 시작
4.28 /
글놀이마당 수료식



글놀이마당

아동독서지도동아리 '글놀이마당'은 책을 통해 소통하고, 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책 읽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한다'는 비전에 맞게 독서지도, 북아트, NIE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이면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마을 학교를 진행하여 아동이 책을 통해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글놀이마당!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

5월 May

5.12 /
에너지리더양성과정 개강
5.17 /
양성평등양성교육 개강
5.26 /
에너지리더 수료식



햇살바구니

환경동아리 '햇살바구니'는 환경을 주제로 활동해온 주민조직입니다. 환경(EM)제품 만들기과 함께 지역사회 내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환경제품 판매를 위한 바자회, 주민 대상 환경(EM)교육, EM 보급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환경뿐 아니라 에너지에도 관심을 갖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교육 수강 및 에너지 절약 실천 활동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월 June

6.8 /
마담사 공감소통마을사진전
프로젝트 개강
6.14 /
양성평등양성교육 '함마중'
수료식



함마중

양성평등동아리 '함마중'은 양성평등을 주제로 활동을 시작한 올해 신규 주민조직입니다. 양성평등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 중심으로 조직되어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캠페인,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July

7.6 /
마담사 공감소통마을사진전
프로젝트 수료식



다독

다문화독서토론모임 '다독'은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진행되는 모임입니다. 매주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독은 낯선 한국 땅에서 이주여성이 서로 만나고,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어울림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은 이주 여성의 참여를 기다립니다!